

강릉자비원 원생 6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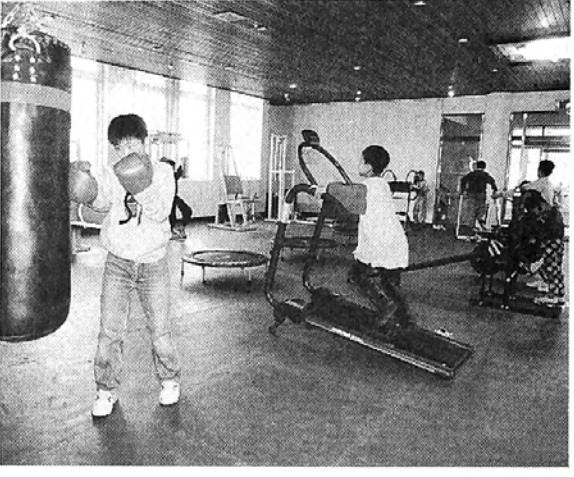
一人一技 '미래준비'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싶다는 김두진(포남초등학교), 권부 세계 챔피언이 꿈인 한문중(육곡중2), 합기도 1단의 실력을 가진 김용식(강릉중1), 시설아동합창대회에서 2년 연속 동상을 차지한 이민주(강릉여중1) 등 모두 65명 가운데 65명(영아 21명 제외)은 모두 한가지씩 재능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 챔피언 꿈꾸며 샌드백 쳐요"
"성악가 될래요"... "피카소 같은 화가"

자비원 원생의 1인1재능 갖기 결실은 2월25일에 있었던 전국소년체전 강원도 최종선발대회에서 맺어졌다. 세계 챔피언을 꿈꾸며 자비원 칠린팀을 자랑하는 최종민(플라이급) 2위, 신원섭(코급) 2위, 공영식(밴턴급) 3위, 한문중(스플급) 3위, 김대환(핀급) 3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이다. 이 대회에는 처음으로 권부를 하는 원생 모두가 출전했다. 6개월간 밤 늦게까지 땀을 흘리며 노력한 끝에 성취한 메달이기에, 최선을 다한 보람과 자랑스러운 결실이 되었다. 현재 권부 분야를 지도하는 문지호 코치(강릉종합운동장 권부도장)는 "아이들이 처음엔 싸움 배우러 온 것처럼 보였는데 날이 갈수록 예의와 규범이 밝아져 제대로 배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대견스러워 했다.

최승준 자비원 사무국장은 "원생들에게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길러주기 위하여 약 2년전 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후원자로: 7609653 자비복지원 (강릉=고영배 기자)



▷강릉 자비원에서 원생 전원이 1인1기를 익히고 있다.

현불뉴스

진흥원 '97 청정운동 결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문각)은 26일부터 27일까지 과산 다보수련원에서 전국불교지도자 80여명을 초청, 청정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올해의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97 청정운동 결사대회를 개최한다. 이날행사는 강건기교수(전북대 철학과)의 '청정운동의 이념과 방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 각대회의 실천지침을 토의하여 지역별 이벤트를 채택할 계획이다.

北동포돕기 반대광고 '반박'
조계종 중앙신도회 송재건 회장이 16·17일 일부 일간지 광고면에 게재한 주장과 관련, 교계 9개단체가 17일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송회장은 현재 민간단체의 북한돕기 운동이 △북한동포가 남한정부에 대해 적개심을 갖도록 한다 △북에 지원된 식량은 군과 특권층에 집중돼 전쟁위험을 불러일으킬 뿐 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동포가 즉시 받을 수 있을 때만이 우리의 식량원조가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계단체들은 "중앙신도회의 첫 대의 일성이 스스로의 망신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직접전담을 하고자 한다면 중앙신도회는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교법사 신분 중헌명시 필요"
지난 12일 동국대에서 열린 전국교법사단 창단 6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이육태법사(부산 해동중)는 '전법의 해에 따른 교법사의 역할과 사명'의 주제발표에서 교법사의 명확한 신분규정은 촉박한 교화활동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법사는 현재 교법사의 위치는 교학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 인식되고 있으며, 종단으로부터 교화임무를 부여받은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 이중적 신분을 띠고 있어 교화활동에 커다란 장애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민족문화사랑 캠페인
한민족불교진흥회(집행위원장 정병수)는 27일 서울대 입구에서 '4·27 문화유산 보호와 민족문화 사랑'을 위한 시민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대 입구에서 관악산 연주암까지 산행을 하며 '한민족 한마음 우리문화 사랑하자'는 행사 슬로건이 새겨진 부채를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홍보를 마친 후 연주암에서 강연회도 연다.

27일 전북파라미타 백일장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전북지부 준비위원회(위원장 도영)는 27일 오전 9시30분 금산사 대적광전 앞에서 제1회 파라미타 백일장을 개최한다. 또 어릴림한마당을 통한 청소년 장기사랑과 금산사대 환경정화 활동도 벌인다.

황룡사대종 해저탐사 착수

세계 최대의 황룡사 대종과 같은 사공이 과연 우리 눈앞에 나타날까, 97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동해에 수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황룡사·같은사 대종을 찾기 위한 해저탐사가 마침내 13일부터 시작됐다. (지도 참조)



스쿠버 등 20여명의 탐사 인력, 수중에 가라앉은 물체를 식별해 낼 수 있는 레이더와 금속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지원받은 탐사단은 종이 수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대왕암입대 12만평을 1m 간격으로

로 한달동안 샅샅이 뒤지게 된다.

"경주경마장 철회 축구" 고교학회 등 서명운동

한국고교학회(회장 임효재)를 비롯한 12개 학회는 경주 경마장 건설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범국민적 서명에 돌입했다. 12개 학회는 동참문에서 "유적지가 밀집한 경주에 경마장을 건립하는 것은 문화과과 행위"라 지적하고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화 법왕사 준공 '포교알장'

유치원·도서실 등 갖춰 강화 법왕사(주지 계성)는 현대식건물로는 강화 최대 규모의 법왕사를 신축하고 20일 준공 대법회 및 미타상존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새로 준공된 법왕사 건물은 대지 358평, 연면적 408평 규모(지

중하·영담스님 이사직 사퇴 요구

불방 범불교대책위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범불교 대책위원회'(위원장 동출스님 이하 범대위)가 결성돼 불교방송 공공화사업의 수습문제가 범불교적인 차원으로 확대됐다. 범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중하스님 영담스님의 이사직사퇴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범대위는 불교방송 재단이사회와 조계종 중앙총회 사회분과위가 함께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 이번 사건의 객관적인 진상과 약과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주장했으며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관련자에 대한 사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

탑골공원 노인학교 운영

조계종 '노인사랑 나눔터' 서울시 우수프로 선정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의 탑골공원 노인학교 '노인사랑 나눔터'가 서울시에서 공모한 시민운동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됐다. 5월초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총 7회가 실시될 예정인 노인사랑 나눔터 프로그램은 정기적

인 노인사회교육 노인클럽조직 봉사활동 등으로 노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노인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여가선용방법, 노인과 성, 올바른 생활, 노인과 건강, 노인과 종교 등의 주제로 노인복지관련 교수 및 전문가가 강의한다. 자원봉사단 봉사활동은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미용 구두수선과 자신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대회를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재단 이용권사무국장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인생의 가치와 존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법도량 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 5월 신청받아

조계종종무원(원장 월주)은 지난 11일 종무원회에서 '전법도량 지정 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예고했다. <관련기사 3면>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의 사항을 명시한 규정예 따르면, 전법도량

은 우선적 예산 지원, 주지인사의 우대, 법사단 파견 등의 지원이 이뤄지면, 전법도량은 신도입문 교육 및 신도교육기관을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조계종종무원회는 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법도량 지정을 위한 작업에 나선다. 5월 초 전법도량 신청을 공고하고, 빠르면 6월중 시범사찰 5곳, 거점사찰 5곳을 전법도량을 지정한다는 일정을 세워두고 있다.

지난해 조계종에서 이례적으로 총무원장사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과연 몇명의 장애인이 이곳을 이용해 봤을까? 답은 '거의 없다'이다. 경사로가 심하게 굽어있는 데다 힘겹게 올라갔다고 해도 경사로와 건물바닥이 접하는 곳이 30cm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는 전사행정의 표본으로 교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20일은 제1회 장애인의 날

이었다. 장애인의 날만 다가오면 불거지는 교계의 낯뜨거운 관심은 장애인을 상품화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장애인들은 아무도 스스로 장애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대부분 후천성 사고로 인한 것

이었다. 장애인의 날만 다가오면 불거지는 교계의 낯뜨거운 관심은 장애인을 상품화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장애인들은 아무도 스스로 장애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대부분 후천성 사고로 인한 것

안타까운 장애인포교

이어서 우대나 비하도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인복지자들은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대해주는 공동체 의식을 바랄 뿐이라고 호소한다. 그런데도 교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터부시각 강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이 무시되고

있다. 장애인에 현 제도상 출가할 수 없다. 이것은 정화때 '체면과 품격이 떨어진다'는 시각에서 이승만정부에 의해 규정된 승려자격 8개조항에 의거해 금지돼 있다. 그렇다면 부처님 10대제자이며 맹인으로 '천안제일'이었던 아나올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장애인

절에 가면 시설미비보다 굽지않는 시선이 더욱 힘들다고 한다. 장애인 복지자들은 신체장애의 벽보다 제도의 벽 물리의 벽 마음의 벽이 더 높다고 한다. 누가 누구에게 장애인이라 하기에 인권의 전환을 통한 마음의 장애극복이 절실하다.



하필이면 비구니연상 광고
동부회재가 최근 자사 자동차보험 이미지광고를 하면서 하필이면 비구니님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실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회사는 광고에서 상단에 '신(神)은 인간을 만들었다'는 카피 위에 사발한 여인의 사진을 실고 있다. 이에 대해 동부회재 관계자는 "특정종교 수행자를 연상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광고의 게재여부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님오신날 실법자료, 법보시책자 보급안내

스님이 들려주는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스님이 들려주는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크기/신국판(15.2cm×22.3cm) 80페이지
■ 정가/1,500원

스님이 들려주는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부처님오신날의 의미, 부처님의 탄생이야기, 등공양의 유래와功德, 관불의식의 유래, 봉축법문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사찰에서 초파일 법회 홍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초파일 전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200원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맨 뒷장에 법보시자 명단을 넣어드립니다

수록내용

제1부 봉축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 봉축 발원문 1·2
연등공양 발원문/어린이 봉축 발원문
봉축시 1·2/팔상예문(八相禮文)

제2부 이야기 하나
현 코끼리의 꿈/어린이왕자 싯다르티의 탄생
부처님의 탄생이야기/새벽 불...큰 깨침
생명의 고향 열반으로
이야기 들
부처님오신날 등을 켜다
민개의 등 하나의 등
은 거리의 잔치불 사일 초파일/등 공양의 유래
연꽃 등 밝히며 거리를 밝히며
이야기 셋
초파일 이기 부처님께 감상수 부으며
관불 의식의 유래

제3부 봉축법문
봉축법어 1-무우수꽃 피는 불비니동산
봉축법어 2-하얀연꽃 피어나라

◆ 온라인 번호 ◆
농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체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연등공양 이야기

부처님의 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 인등의 유래와功德,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크기/신국판 64페이지 ■ 정가/1,500원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를 출생, 출가, 성도, 교화, 열반 편으로 나누어 신도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초파일 봉축법회때 신도님들의 불심을 돈독히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크기/신국판 72페이지 ■ 정가/1,500원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